張鉉(장현) ? (연대미상)

이조(李朝) 仁祖·肅宗代(인조·숙종대)의 사람.

丙子胡亂(병자호란)때에 通譯官(통역관)으로서 昭顯世子(소현세자)와 鳳林大君(봉림대군 후
에 孝宗大王(효종대왕))이 人質(인질)로 瀋陽(심양)으로 끌려 갈 때 따라간 바 있고, 後日(후
일)에 知事(지사) 벼슬을 지냈다 함. 이 노래는 昭顯世子(소현세자)와 鳳林大君(봉림대군)을
염려하여 지은 노래이다.

221 鴨綠江(압록강)허진後(후)에 에 옛분우리님이 / 燕雲萬里(연운만리)를어디라고가시
고 / 봄풀이프르고프르거든即時(즉시)도라오쇼셔

註 어옛분-가연은, 훌륭하면서 딱한 입장

우리님-丙子胡亂(병자호란)으로 볼모가 되어 燕京(연경)으로 잡혀가는 昭顯世子(소현세
자)와 鳳林大君(봉림대군)을 말함.

燕雲萬里(연운만리)-중국의 서울 瀋陽(심양)으로 가는 머나먼 길.

현대어역- 압록강 해가 진 후에 가연은 우리 님 머나먼 만리타국 길을 어딘 줄 아시고 가
십니까? 봄에 풀이 푸르고 푸르시거든 즉시 돌아오세요

朱義植(주의식) ? (연대미상)

李朝(이조) 肅宗代(숙종대)의 武臣(무신)으로서 자는 道源(도원), 호는 南谷(남곡)이라 한다.
肅宗大(숙종대)에 武科(무과)에 올라 漆原縣監(칠원현감)을 지내다가 節氣(절기)를 숭상하여
政界(정계)의 粉爭(분쟁)을 떠나서 그의 사위 金三賢(김삼현)과 더불어 心中(심중)의 不平(불
평)을 노래로 풀곤 했었다. 그의 詩想(시상)에는 人生(인생)의 虛無感(허무감)에서 享樂的(향
락적)인 傾向(경향)이 농후하다.

222 하늘이높다하고발져겨서지말며 / 짜히두텃다고망이뵈지마를거시 / 하늘짜높고두터
위도내조심을하리라

註 발져겨서지말며-발돋움하고 서지를 말할 것이요

망이뵈지마를거시-많이 밟지 마를 것이니

현대어역-하늘이 높다고 해서 발돋움하고 서지 말며 땅이 두텃다고 해서 힘주어 밟지는 말
을 것이니 하늘땅 높고 두터위도 내가 조심을 하리라

223 窓(창)밖기아희와셔오늘이새희오커늘 / 東窓(동창)을열쳐보니네뵈든희도닷다 / 아
희야萬古(만고)헌 히니後天(후천)애와 닐러라

註 새희오커늘-새해이옵니다 하거늘 열쳐보니-힘있게 열어젖히니

네뵈든희-옛날에 솟아오르던 해

현대어역-창밖에 아이가 와서 오늘이 새해라고 하거늘 동쪽 창을 열어 젖혀 보니 전에 솟
던 해 솟았도다 아이야 장구한 세월을 두고 뜨는 해이니 뒷날에 와서 알려주어라

224 말하면雜類(잡류)라호고말아니면어리다호니 / 貧寒(빈한)을넘이웃고富貴(부귀)를새
오논디 / 아마도이하늘아래사를일이어려워라

註 雜類(잡류)-점잖지 못한 사람들, 잡된 무리 貧寒(빈한)-살림이 가난하여 집안이 쓸쓸함
새오논디-시샘하는데

현대어역-말을 하면 점잖지 못하다고 하고 말을 안 하면 어리석다고 하네 가난한 집안을
남이 웃고 부귀를 시샘하는데 아마도 이 하늘아래 살 일이 어려워라

225 늙고病(병)든몸이가다가아므되나 / 절로손수뉘헤손조밧가로리라/結實(결실)이언매
리마는連命(연명)이나호리라

註 아므되나-아무데나 손조밧가로리라-손수 밭을 갈리라
언매리마는-얼마나 되겠느냐마는

현대어역-늙고 병든 이 몸이 가다가 아무데나 저절로 솟은 산에 손수 밭을 갈리라 곡식이
얼마나 되겠느냐 마는 목숨이나 이어가리라

226 荊山(형산)에璞玉(박옥)을어더世上(세상)사람뵈라가니 / 것치돌이여니속알리뉘이시
리 / 두어라알닌들업스라들인드시잇거라

註 荊山(형산)-중국 湖北省(호북성)에 있으며 예로부터 玉石(옥석)이 나온다는 산을 말한다
璞玉(박옥)-갈고 다듬지 않은 옥돌 뵈라가니-보여주니
것치돌-거친 돌이지만 여니 속 알리 뉘 이시리-남의 속을 아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현대어역-형산에 옥돌을 얻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니 거친 돌이지만 남의 속을 아는 사람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두어라 아는 사람 없겠느냐 그냥 돌인 것
처럼 있어라

227 人生(인생)을헤여호니호바탕꿈이로다 / 조흔일구즌일꿈속에꿈이여니 / 두어랏꿈긋
튼人生(인생)이아니놀고어이리

註 헤여호니-헤아리니, 생각하니

현대어역-인생을 생각하니 한 바탕 꿈이로다 좋은 일 안 좋은 이 꿈속에 꿈이 어니 두어라
꿈 같은 인생이 아니 놀고 어이리

228 주려주그려호고首陽山(수양산)에드러거니 / 현마고사리를머그려키야시라 / 物性(물성)이구븐줄피워펴보려고키미라

註 주려주그려호고-끓어 죽으려고하고 首陽山(수양산)-白夷(백이)와 叔齊¹⁾(숙제)가 세상을 등지고 숨었던 산, 중국의 山西省(산서성)에 있다 현마-설마
펴보려고키미라-펴 보려고 캐었던 것이다

현대어역-끓어 죽을려 하고 수양산에 들어가니 설마 고사리를 먹을려고 캐었을까 고사리 생긴 것이 굵어 미워보여 퍼볼려고 캐었던 것이다.

229 屈原忠魂(굴원충혼)비에너혼고기 / 采石江²⁾(채석강)에긴고래되야이적선(李謫仙)등에언포호늘우희을느시니 / 이제는새고기낫거니낙가슴다엇더리

註 屈原³⁾忠魂(굴원충혼)-굴원의 충성된 혼
李謫仙⁴⁾(이적선)-神仙(신선) 또는 仙人(선인)을 말한다 李白(이백), 李太白(이태백)을 말한다

현대어역-굴원의 충성을 배에 넣은 물고기 채석강에 긴 고래되어 이태백을 등에 업고 하늘 위로 올라가니 이제는 새로운 물고기를 낚으니 삶아 먹어 어찌리

230 忠臣(충신)의속마음을그님금이모르므로 / 九原千載(구원천재)에다스려호려니와 / 比干(비간)은마음을뵈야시니므슴恨(한)이이시리

註 九原千載(구원천재)-천년이나 이어져 내려오는 묘지, 사대부들의 공동묘지, 충신들이 죽어 있는 묘지
스려호려니-슬퍼하려니 比干(비간)-殷(은)나라의 충신, 마지막까지 왕에게 忠諫(충간)하고 왕 앞에서 죽음

현대어역-충성된 신하의 속마음을 그 임금(은나라의 紂임금)이 모르므로 천년이나 이어져

1) 은나라 말, 주왕(紂王)의 폭정이 심해지자, 제후 서백(西伯-周王)의 아들 발(發-周武王)이 이를 치고자 하였다. 이에, 백이와 숙제는 "신하로서 군주를 치는 것이 어찌 인(仁)이라 하겠는가?"며 이를 만류했지만 끝내 발이 주를 치는 것을 보고는, "주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으리라."며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뜯어먹다가 굶주려 죽었다. 이로부터, 후세 사람들이 충의와 절개를 일컬을 때면 이들 형제의 고사를 인용하곤 하였다.

2) 채석강 - 중국 안휘성에 있는 강인데, 이태백이 이 강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술에 취하여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가 빠져 죽었다.

3) 屈原(굴원)-중국楚(초)懷(왕)을 섬겼으나 奸臣(간신)의 謀陷(모함)으로 江南(강남)으로 귀양갔다가 먹라수(먹라수) 빠져 죽은 중국 전국시대의 忠臣(충신)이다

4) 李謫仙(이적선)- 神仙(신선)이 굴원의 고기를 먹은 고기가 큰 고래(용)가 되었는데 이 고래(용)을 업고 하늘로 올라갔다 한다. 굴원이 빠져 죽은 후에는 채석강의 물고기를 사람들은 굴원의 고기라 하여 먹지 않았다고 한다

내려오는 묘지에 모두 슬퍼하는데 비간은 마음을 털어놓았으니 무슨 한이 있으리

231 唐虞(당우)도조커니와夏商周(하상주) | 더욱조회 / 이제를헤여흐니어니적만흔거이고 / 堯天(요천)에舜日(순일)이불가시니아모젠줄몰래라

註 唐虞(당우)-요임금 陶唐(도당)과 순임금 有虞(유우)를 말함 태평성대
夏商周(하상주)-고대 중국의 하나라-상나라-주나라 의 세 왕조 어진 정치를 말한다
아모젠줄몰래라-어느 시대 인줄 모르겠다

현대어역-당우 때의 태평성대도 좋아하지만 하상주의 어진정치 더욱 좋다 이제 생각해 보
니 어느 때 만 못지 않고 요임금 때의 하늘에 순임금 때의 해를 보는 것 같
으니 어느 시대 인줄 모르겠다

金三賢(김삼현) ? (연대미상)

앞서 나온 朱義植(주의식)의 사위로서 肅宗代(숙종대)에 벼슬이 折衛將軍(절위장군)에 이르
더니 丈人(장인)과 함께 벼슬을 물러나서 山水(산수)를 벗삼아 自然(자연)을 즐겼다.

232 늙기설은줄을모로고나늘것는가 / 춘광(春光)이덧이엮서白髮(백발)이절로났다 / 그
러나少年(소년)쩍먹음은감흔일이엮세라

註 설은줄-서러운 줄
감흔일이엮세라-감한 일이 없어라, 줄어든 일이 없어라

현대어역- 늙어가는 것이 서러운 일 인줄 모르고 내가 늙었던가 봄날의 별이 덧이 없어 흰
머리가 절로 난다 그러나 소년시절 마음은 줄어든 일이 없다

233 綠楊春三月(녹양춘삼월)을자바미야둘거시면 / 쉼머리썩바내여춘춘동혀두련마는 /
올히도그리못호고그저노화보내거라

註 綠楊(녹양)-푸른 버드나무 쉼머리-흰머리 찬찬-칭칭의 옛 말

현대어역-버드나무 푸르른 춘삼월을 잡아 매어둘 것이면 흰 머리카락 뽑아내어 칭칭 동여
매어 두련 만은 올해도 춘삼월을 흰머리로 매어두지 못하고 그저 늙어 가며 보내
는 구나

234 松壇(송단)에선잠씨야醉眼(취안)을드러보니 / 夕陽浦口(석양포구)에나드느니白鷗(백
구) | 로다 / 어즈버이江山風景(강산풍경)이야어니그지이시리

註 松壇(송단)-소나무로 만들어진 단
醉眼(취안)-잠이 깨어 취한 눈 어즈버-아마도

현대어역-소나무 평상으로 선잠을 깨어 취한 눈을 들어보니 헤질녘의 강의 어구에 드나드는 것은 갈매기이다 아마도 강산의 풍경이야 어디 끝이 있겠느냐, 한도 끝도 없는 것이 강산이다

235 功名(공명)을즐겨마라榮辱(영욕)이半(반)이로다 / 富貴(부귀)를貪(탐)치마라危機(위기)를뵈느니라 / 우리는一身(일신)이閑暇(한가)커니두려운일업세라

註 功名(공명)-공을 세워 이름을 날림 榮辱(영욕)-영광과 욕됨
危機(위기)를뵈느니라-위태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두려운일업세라-겁낼 일이 없구나

현대어역-공을 세워 이름을 날리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영광과 욕먹음이 반반이다 부귀를 탐하지 말아라 위태로움을 당하게 된다 우리는 몸이 한가하니 두려운 일이 없다

236 크나큰바회우회네사람이한가(閑暇)롭다 / 紫芝歌(자지가)호곡조(曲調)를오늘이야드를런가 / 以後(후)는나하나더하니五皓(오호) | 뵈가호노라

註 바회-바위 우회-위에
네사람-商山(상산)의 四皓(사호)(중국의 한나라 때 유명한 은둔자들)
紫芝歌(자지가)-붉은 난초의 노래 상산 사호가 부른 노래

현대어역-크나큰 바위 위에 네 사람이 한가롭다 상산 사호가 부른 자지가 한 곡조를 오늘에야 들을런가 이후에 나(김삼현: 작자) 한 명을 더 하니 오호가 되는 구나

237 내정령(精靈)술에섞겨님의속에흘러드러 / 九回肝腸(구회간장)을다쳐자든닐만정 / 날넋고눔向(향)호믄음을다스로려호노라

註 정령(精靈)-정신과 영혼 九回肝腸(구회간장)-굽이굽이 깊이 든 마음
스로려-쏟어버리어, 사라지게 하여
눔-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현대어역-내 정신과 영혼을 술에 섞여 님의 속에 흘러 들어가서 굽이굽이 굽은 간장을 다 찾아다닐만정 나를 잊고 남향한 마음을 다스리려 한다